"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

-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최지혜(가명)님의 이야기 -

20대 초반에 이른 결혼을 한 최지혜(가명)님은 남편의 무능력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첫째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몇 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겨우 이혼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전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내내 따스하게 곁을 지켜주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예쁜 가정을 꾸렸지만 오랜 소송기간 중 태어난 둘째 아이는 법적 문제로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셋째까지 태어나면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최지혜님은 이혼과 법정공방, 출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고 현재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언어발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먹고살기도 힘든 형편에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둘째아이는 어린이집은 물론 병원에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

아이들에게 평범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최지혜님의 작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최지혜님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